

JOURNAL OF HUMANITIES

人文論叢

81권 2호 2024년 5월

vol. 81, no. 2, May 202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문논총 81권 2호(2024. 5. 31)

/

차례

기획논문	침묵의 가족: 동아시아 비주류 가족의 담론과 현실	
	조선시대의 첩과 서녀 제도·담론·자기인식	이숙인 7
	가족인가 노비인가? 근대 중국의 민며느리, '동양식'(童養媳)	천성림 43
	한 화족서녀(華族庶女)의 삶을 통해 보는 근대전환기 일본여성의 운명	이혜경 79
일반논문	북으로 간 국문학자 신구현 경성제대 출신 독학자에서 주체문예학자가 되기까지	정중현 113
	明代河北地区西夏遗民相关问题杂考	徐成 153
	유럽 철기시대 방어시설의 등장 과정과 그 배경	김종일 171
	18세기 서양 흑인 철학자 안톤 빌헬름 아모와 심신문제	김준영 223
	신경미학과 미술사의 접점들에 대하여 J. 오니언스의 '신경미술사' 개념과 칸트의 연역을 중심으로	손지민 255
	헤센의 장소 브랜딩과 체험 지향성	김화임 289
	Trustfulness as a Risky Virtue	Um, Sungwoo 315

서평	한국여성문학사의 큰 첫걸음 이경하(2023),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20쪽	김경미 347
	한국문학 연구의 사상적 전회 김종욱(2022),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역락, 472쪽	장문석 363
	20세기 사람들의 자유와 덕성 장문석(2023), 『토리노 멜랑콜리』, 문학과지성사, 252쪽	홍종욱 385
	이제 시작된 이야기, 계속 만나고 이어질 이야기 백름(2023), 『재일조선인미술사 1945-1962: 미술가들과 표현활동의 기록』, 연립서가, 511쪽	김지영 401

Journal of Humanities
Vol. 81 No. 2, May 2024

/
Contents

Special Topic Family Members in Silence: The Discourse and Reality of the East Asian Fringe Family

Concubines and the Daughters of Concubines in the Joseon Dynasty
Institutions, Discourse, and Self-Perception

Lee, Sookin | 7

Family Member or Maidservant? Adopted Daughters-in-Law in Modern China

Chun, Sung-lim | 43

The Tumultuous Era of Modern Japan and Experiences of Women through the
Lens of a Daughter of a Concubine

Yi, Hye Gyung | 79

Articles

Shin Gu-hyeon, 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cholar Who Went to North
Korea

Jeong, Jong-hyun | 113

A Preliminary Study of the Xixia Descendants among the “Da Guan” in Baoding
Garrisons

Xu, Cheng | 153

Emerging Process of Defensive Walls in European Iron Age and Its Background

Kim, Jongil | 171

Anton Wilhelm Amo on the Mind-Body Problem

Kim, Jun Young | 223

On the Intersections of Neuroesthetics and Art History
Through Onians’s “Neuroarthistory” and the Kantian Notion of Deduction

Son, Ji-min | 255

Place Branding of Hesse and the Orientation of Experience

Kim, Hwa Im | 289

Trustfulness as a Risky Virtue

Um, Sungwoo | 315

Book Reviews

A Big Step in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Literature

Review of *A History of Joseon Women's Literature: Theory and Practice* by Lee, Kyung Ha

Kim, Kyungmi | 347

The Ideological Turn in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Review of *East Asian Horizon of Korean Literature* by Kim, Jong-uck

Jang, Moon-seok | 363

Liberty and Virtue in the 20th Century

Review of *Torino Melancholy* by Jang, Moon-seok

Hong, Jong-wook | 385

A Story That Has Just Begun to Unfold, and will Continue to Be Met and Followed

Review of *A History of Zaimichi Korean Art 1945-1962: Records of Artists and Their Expressive Activities* by Pek, Rum

Kim, Jiyoung | 401

人文論叢

81권 2호

2024년 5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침묵의 가족: 동아시아 비주류 가족의 담론과 현실

근대전환기를 겪으면서 변화한 것 중에 단연 으뜸은 계급의 철폐와 함께 여권의 신장일 것이다. 여성이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받은 역사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으니, 현실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은 여전히 숙제라고 해도 100년 전 여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는 오늘날의 변화는 실로 드라마틱하다.

그런데 주지하듯 전근대의 여성이라 하여 그 처지가 다 똑같지는 않았다. 신분사회였기에 계급에 따라 여성들이 갈라졌고, 가부장제 사회였기에 남성들의 쓰임에 따라 여성들이 분화되고 위계화되었다. 전근대 여성문제와 가족문제의 복합성과 중층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침만한 이가 없을 것이다. 침의 딸은 누군가의 처가 되지 못하고 다시 침으로 팔려 가며 어머니의 운명을 대물림한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당하는 운명은 태어나자마자 며느리로 팔려 가는 일로도 변주된다. 그나마 굶주림을 걱정하는 가정에서 영아살해를 면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처지는 면한 결과였다.

인권과 평등한 권리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숨가쁘게 여성을 해방시킨 근대화 속에서도 이들은 변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음지에서 가려진 존재로 살았다. 차별과 무시의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비하하기까지 하는 삶,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닌 그녀들을 우리는 ‘침묵의 가족’이라 부른다.

범주의 성격에 따라 가족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이들은 가족의 주변인일 뿐 아니라 사회의 주변인이기도 했으며, 현대에도 이들은 존속한다. 동아시아 가족 연구 자체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보니, 이른바 비주류, 비정통, 주변에 위치한 가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소략한 실정이다. 근대화에 따라 달라진 여성의 위상을 조명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주류 또는 규범적 가족 내의 처와 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첩, 민며느리, 서녀 등 비주류 여성 가족에 관한 연구는 사회사의 발전에 따라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유행하면서 최근들어 비로소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아직까지는 법학 분야의 법리와 판례분석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동아시아 비교사의 시각으로 이루어진 연구도 본격화되지 못했다.

본 특집은 민주주의의 도입 속에 시민적 권리를 부여받았던 ‘여성’ 안에 포함되지 못한 채 여전히 소외되었던 음지의 여성들에 주목했다. 근대 이후에도 지속된 전통적 가족제도의 무게, 생존을 위한 여성들의 다양한 적응방식 등에 주목하면서, 유교 사상을 공통분모로 가지면서도 각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온 한중일 각 나라에서, 여성, 혼인, 가족을 둘러싼 문제들이 각기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이숙인의 「조선시대의 첩과 서녀: 제도·담론·자기인식」은 조선시대의 첩에 주목하면서 가족의 일이었던 처첩문제가 소생 자녀의 신분을 규정하며 사회로, 국가로 확대되어 간 서열차별 대우의 기원과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조선시대 처첩문제가 제도화되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조선초기는 신유학에 의한 종법적 가족 사상이 국가 이념과 만나면서 혼인·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첩 제도의 마련도 그 일환이었음을 처첩 분간을 위한 쟁송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혔다. 나아가 16세기 예학과 만나면서 첩과 첩자(妾子)가 예학적 담론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고찰했는데, 첩의 의무를 가중시키고 첩의 지위를 강등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각종 예설을 통해 확인했다. 덧붙여 구체적 가족 안에서 첩을 두는 목적 또는 유형, 그리고 파편적인 기록을 모아 첩과

서녀의 자기 인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천성림의 「가족인가 노비인가? 근대 중국의 민며느리, ‘동양식’(童養媳)」은 우리에게 ‘민며느리’로 알려진 중국의 ‘동양식’을 다뤘다. 영유아기에 시가로 입양되어 때가 되면 결혼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놀랍게도 중국에서 동양식(민며느리)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는 청말민국시기였고 21세기에도 존속했다. 딸을 보내는 1차적 이유는 빈곤 때문이었지만, 딸을 보내면서 받은 얼마간의 돈으로 아들을 결혼시키는 경우도 많았으니, 뿌리 깊은 남존여비사상이 근저에 있었다. 이 글은 민국시기에 집중해서 동양식(민며느리)의 역사와 등장배경을 한반도의 민며느리와 비교하며 개관하고, 동양식(민며느리)이 재례(財禮)와 지참금 등 혼인비용 절약뿐 아니라 여성노동력의 가치 평가와도 관련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나아가 시가에서 동양식(민며느리)의 지위와 가족관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빈곤한 하층민 여성이라는 배경에서 동양식(민며느리)은 수모와 학대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본 논문은 동양식(민며느리)의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가족관계를 소개했다.

이혜경의 「한 화족서녀(華族庶女)의 삶을 통해 보는 근대전환기 일본여성의 운명」은 일본 화족의 서녀였던 야나기와라 박쿠렌이라는 여성을 통해 당시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조직하고 규율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근대 전환기를 살았던 박쿠렌은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을 하는데, 그녀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 그녀의 생애에 변화를 가져온 법률의 제정·개정을 비롯한 사회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그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가장의 결정에 의한 두 번의 결혼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속에서 여자는 사회적으로 무능력자로 간주된 채 다만 정략결혼의 도구로만 쓰였던 사회를 반영하는 것임을, 자유연애에 의한 세 번째 결혼의 배경에는 자유연애와 인격이 화두가 되었던 다이쇼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음을 논했다. 이어서 여성단체의 투쟁에 의해 얻은 여성의 정치집회의 참여 허용을 배경으로, 박쿠렌이 가계를 지탱하기 위해 경제활

등을 하는 것을 넘어 남편의 선거유세에 참여하고 나아가 창기 해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비로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논했다.

다만 이번 특집은 가족의 경계에 있는 첩, 서녀, 동양식(민머느리) 등을 다루는 초기 시도로서, 동아시아 삼국을 다루면서도 비교의 지평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첩과 서녀에 대해 다뤘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공히 근대를 다뤘으나 중국의 경우는 동양식(민머느리)의 현황을 다뤘고 일본의 경우는 특정한 개인을 통해 사회를 보는 방식을 택했다. 공동연구자들은 이 주제의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며, 그리하여 많은 사례들을 확보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상황을 공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혜경